

풍고 김조순의 옥호정사(玉壺精舍) 경영과 의미경관 해석

김형석*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는 대비된다. 다시 말해 정원을 포함해 경관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정수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의 개념이 도출된 것이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19).

한국 정원은 물리적 실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며, 자연과 인공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원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속에 내재된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영활동에 있어서도 자연환경과 지리를 선택하여 생활공간을 완성도 높은 미학을 체현하는 건축과 조경으로 꾸미고, 이를 미적으로 파악하는 문학과 회화로 재구성하였다(안대회, 2007: 24). 내재된 의미경관은 조영자의 철학과 사상이 녹아있는 것으로 그 공간과 경관을 대상으로 한 시문, 각자, 편액, 주련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가 정원인 소쇄원이 남아있는 실체보다 '소쇄원 48영'과 여러 문사들의 시문에 의해 정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선 후기 정계의 핵심 인물인 김조순의 한양 도성 내 별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옥호정의 입지 및 그 의미를 고찰하여, 전통정원으로서의 가치를 구명하는 것은 건축 및 조경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로 판단된다. 기존의 경관에 대한 시각적 연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상지의 경관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함으로써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옥호정의 입지 및 조영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시문분석을 통한 의미경관과 조경미학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풍고 김조순의 옥호정사 경영

1. 풍고 김조순과 옥호정사

흔히 김조순을 시작으로 60여 년간 지속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勢道政治)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순조의 장인이 된 후에도 그는 정국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한 듯하다(유봉학, 1997: 265). 이렇듯 풍고 본인은 당파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권세에 큰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를 둘러싼 적족들에 의해 세도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그의 성품은 옥호정 등 별서의 조영에서도 잘 드러난다.

옥호정은 화려하지 않았으며,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외조부모에 대한 성의조차도 과하다고 물리치는 등 풍고의 검소함과 외척으로서 매사에 조심하였음을 보여준다.

2.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서 김조순의 원림생활

18세기 이후, 한양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쳐 전원의 삶을 동경하고, 도성 근교에 전장(田莊)과 별서를 경영하며, 삶의 여유를 회복코자 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사대부들은 뛰어난 승경(勝景)을 모방하여 정원을 가꾸고 원예에 탐닉하며,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위로 받았다(정민, 2010: 127). 이는 번잡하고, 세속적인 도시생활이라 할지라도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경화사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김조순은 왕실의 외척이 된 후 권력과 재력을 가진 최고의 세도가로 옥호정뿐 아니라, 많은 제택을 도성 부근에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문화의 향유자로서 이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유봉학, 1997: 273-274), 본 저택 외에도 도성의 교외에 '현암향려(玄巖鄕廬)'와 '황려병사(黃驪丙舍)' 등을 두고 머물기도 하고, 중년에 들어서는 '옥호산방(玉壺山房)'에 주로 머물다가 말년에 삼청동의 '소무속현(小無俗軒)'에 주로 거처하였다¹⁾.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모든 거처가 도성 부근에 위치하였다는 점과 소박하게 조영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한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도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경화사족으로서 한양의 도시생활을 누려왔고, 도성 부근의 산수가 수려한 곳에 별서를 경영하며 무욕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당시 경화사족들의 관심은 향촌의 별서가 아니라, 한양 내의 원림을 번잡한 도시의 삶과 구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꾸미는데 있었으며(서영애와 최정민, 2011: 89), 옥호정 또한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III. 옥호정사의 입지와 시문에 나타난 의미경관

1. 입지

옥호정이 입지한 곳은 경북궁 배면으로 이어지는 북악산 동편 산록으로 한양의 중심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당시에는 백악에서 응봉, 낙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남산 등 한양의 산세와 성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법궁으로 사용되었던 창덕궁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다. 이러한 까닭에 옥호산방의 살림집은 정남향을 하고 있지만, 누정들은 시야가 열려있는 동쪽을 향해 배치되었다(정봉구, 2009: 59).

경화사족들이 동경하는 생활은 번잡하고 세속적이지만, 모든 물자와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편리한 도성 내에 본가를 두지만 사대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산수가 수려한 곳에 별서를 경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김조순이 경영한 옥호정을 비롯한 여러 별서들은 이러한 입지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경화사족들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시문분석

시문에 나타나는 경관은 자체 경관의 묘사보다는 외부환경의 묘사가 일반적이며, 생활하는 모습, 작정자의 인생관, 초현세적 은일관, 자연관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원의 소재가 삼라만상과 우주만물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271).

김조순의 문집인 『풍고집』과 그의 아들 김유근의 문집 『황산유고』 등에는 옥호정과 관련한 시가 다수 전하고 있다. 해당 유적과 많은 자료들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시문 등의 형태로 남아있어 건축미학과 조경미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영위하고자 한 삶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안대회, 2007: 5). 이들의 문집에는 옥호정을 가리켜 ‘옥호정사’, ‘옥호’, ‘호정’, ‘호사’, ‘산사’, ‘산방’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옥호정도」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옥호정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작정자의 내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관련 시문 분석을 통해 옥호정의 의미경관에 대해 살펴보고, 옥호정에 대한 작정자의 내면세계를 검토하였다.

시문분석 결과 옥호정 관련 시문은 주로 옥호정에서의 감회, 자연의 경이로움, 학자적 기풍, 세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등을 옥호정의 자연물과 인공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각 시문에는 옥호정의 경관, 시의 소재로 사용된 자연물과 인공물,

작자의 감정이입 대상 및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

옥호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옥호정도」라는 그림에만 의존하여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던 것을 시문분석을 통한 당시의 조경 미학, 작정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조순이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는 권력욕이 없었던 듯하며, 한양에 뿌리를 둔 경화사족의 거두로서 권세와 부를 가지고 도성 내에 옥호정을 포함한 여러 별서를 경영하였으나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둘째, 옥호정사의 입지는 한양에서 나고 자란 경화사족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번잡한 도회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치·경제·문화가 집중된 한양 생활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무위자연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한 경화사족들의 이중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옥호정 관련 시문은 기본적으로 도가적 자연관과 함께 학자적 기풍을 보여주고 있었다. 옥호정 관련 시문을 분석한 결과, 자연의 경치를 완상하고 풍류를 즐기며, 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최고 권세가의 외로움이 묻어나며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교적 자연관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다.

옥호정은 조선후기 한양의 대표적 별서로서 자신만의 이상향을 추구하고, 신선의 삶을 동경하는 도가적 자연관과 유학자로서의 학자적 기풍, 과수·채전 등의 실용적 정원문화로 대변될 수 있다.

주 1. 『楓臯集』附錄「楓臯金公神道碑銘」(유봉학, 1997: 274 재인용)

참고문헌

1. 서영애, 최정민(2011)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도시문화와 정원 예술.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 안대회(2007) 조선후기 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한문학보 17.
3. 유봉학(1997) 楓臯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4. 정민(2010) 다산 정약용의 이상주거론. 동아시아문화연구 47.
5. 정봉구(2009) 조선 후기 한양의 원림에 관한 연구: 경화사족의 원림기와 원림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한국전통조경학회(2011) 동양조경문화사. 서울: 대가.